

“전국체전 국민화합의 장 만들 것”

오는 10월 전북서 열려 연출자문위원회 발족 분야별 전문가 등 구성

전북도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출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행정관계자, 의회로 구성, 분야별 외부전문가는 14명으로 기획·연출 5명, 음악 2명, 무용 2명, 의상·디자인 3명이다.

자문위원회는 15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개·폐회식 운영과 관련 각종 아이디어 제공, 개·폐회식 프로그램 구성 검토·자문, 기획·연출, 음악, 안무 등 세부연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게 된다.

연출자문위원회 발족 후 회의에서 도정 3대 역점 핵심과제인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을 전라북도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최첨단 연출기법(스마트 융합기술 등)을 적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송하진도지사가 위촉장을 갖고 위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극 활용 중점 부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개·폐회식 장소로 이용되는 익산종합운동장 전체를 입체적 시각화로 환상적인 공연 연출로 참석 관중의 몰입도를 높이고, 연령층별 선호가 높은 연예인을 대거 출연시키

기로 했다. 또한 난해한 군무와 퍼포먼스는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국민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발족식 인사말에

서 “대행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식견과 감각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찬년의 비상을 알리고 전북도민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 새 경영목표 설정 새 출발

‘체전으로 하나되고 체육으로 건강 백세’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하나되는 체육회’를 올해 기치로 내걸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11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아래 ‘체전으로 하나되고 체육으로 건강 백세’를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도 체육회는 전문체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체육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팀 창단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효율적인 체육행정을 구현하고, 전북을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과 응원단 등이 도내에 머물며 관광 등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 체육회는 오는 10월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스포츠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문화 체전 ▲도민이 준비하는 참여 체전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안전 체전 등으로 치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체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동·하계 강화훈련과 전략회의 등 경기력을 향상시켜 이번 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다는 각오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육 강도로서 세계 속의 전북을 널리 알리는 한해였다”며 “올해에는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전문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하나되는 체육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국가보조금 허술... 제2의 어금니아빠 막자”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11일 보조금을 남용한 ‘어금니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어금니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네 단계를 제시하면서 “이 내용이 모두 담겨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상시 점검하는 체제 구축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신고 독려와 포상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강도 높은 제재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

다.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 정부도 보조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차제에 그동안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지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결정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자살자 네 명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는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담감하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역작용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어떻게 차단 및 보완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도와드릴 것인지 논의하고 상시점검하자”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 6차산업 1번지 우뚝

10개 세부사업에 180억원 투자... 전년비 15.3% 증가

전북도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통, 홍보 및 상품 품질관리 등 ‘농업인이 체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6차산업’을 목표로 10개 세부사업 180억 원을 투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6차인증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농협, 전북생물산업진흥원, 6차산업인증자협회 등)과 맞춤형 지원으로 6차산업화 성과를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6차 인증사업자 215개소 전국 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안군(유)마이산현미발효밥 최우수상 수상, 6차지구 공모선정(국비 15억) 등

전국에서 6차산업 1번지로 우뚝서게 됐다.

또한 수도권, 도내 우수제품 판매촉진 행사를 12회를 통해 1억6800만원 6차산업 인증품을 판매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전북 6차산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도 관계자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인 보람찾는 농민, 재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6차산업 경영체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6차산업 우수제품을 홍보 할 수 있는 유통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여 농민,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집으로 부활한 빈집, 반값으로 임대

도, 저소득층에 5년간 제공

전북도가 올해에도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방치 돼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제공하는 반값 임대주택을 시행한다.

도는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불안도 해소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30개동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유자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지방 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며 소유자에게는 빈집 관리를 대신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 고창군 심원면

- ▷월산마을 264,000원
- ▷신기마을 327,000원
- ▷김종준님 200,000원
- ▷서전마을 330,000원
- ▷예동마을 80,000원
- ▷금산마을 236,000원

** 계 1,437,000원

◆ 부안군 주산면

- ▷부동마을 205,000원
- ▷부서마을 206,000원
- ▷화봉마을 147,000원

** 계 558,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